

## 인문학으로서 지리학과 지리교육 -존재이유를 묻다-

박승규\*

### Geography and Geography Education as the Humanities: Ask the Raison D'être

Seung-Kyu Park\*

**요약** : 이 논문은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존재이유를 인문학적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존재론에는 지리학이 없었고, 지리학은 존재론에 대해 무관심했다. 하지만, 인간은 지리적 존재이다. 인간은 공간을 차지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지리학에서는 공간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인간의 실존을 이해한다. 인간이 상실한 근원공간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그것을 통해 인간 존재가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다. 지리교육도 '지금 여기'에서 가르쳐야 할 이유를 찾는다. 존재론적인 차원에서의 지리교육에 대한 성찰이 지리교육의 미래를 밝게 한다. 지리학과 지리교육은 '지금 여기'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분명있다. 그것은 인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고, 답으로 완성된다.

**주요어** : 존재론, 실존, 경험의 양상, 위치, 새기다, 인문학

**Abstract** : In the present paper, the raison d'être of geography and geography education in the humanities are explained. Geography was not considered as ontology notion and geography was also not aware of regarding ontology. However, human being is the geographic existence. People occupy the space they live in and reveal their own existence by virtue of the space. In geography, we understand human existence by concrete things consisting of the space. Geography can explain the necessity for the space of origin where human being had lost and open a gate to find their own existence through it. Geography education can find the justification as to why we should teach it in 'now here'. We can make a bright future in geography education in terms of critical reflection at the ontological dimension. Geography and geography education have clear reason to exist in right here. That begins from the question of what relationship between human and space is and completes the raison d'être based on the answer.

**Key Words** : ontology, existence, mode of experience, location, graphien, humanities

### 1. 서론

중단, 불일치, 놀라운 일은 우리 삶의 일상적인 조건이다. 심지어 많은 사람은 이런 조건을 꼭 필요로 한

다. 요즘 인간의 정신은 갑작스런 변화와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자극이외의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것이든 오래 지속되는 것을 참지 못한다. 일상의 무료함 속에서 결실을 일구는 법을 모른다(Lee, 2005).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 놀라면서 산다. 사회의

\*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부교수(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opos@cnue.ac.kr

변화가 생각보다 빨라 놀라고, 새로운 교육정책이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 놀란다. 우리 사회의 민주적인 문화가 혼돈에 빠져있어 놀라고, 일상적인 삶과 이념이 불일치하는 모습에 놀란다.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크게 놀라움을 주는 것은 교육을 새롭게 바꾸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이다. 갑작스레 교육과정을 바꾸고, 그것에 근거해 새로운 수능 개편 안을 제시한다. 일상적인 삶의 무료함에 자극을 주기 위한 교육적 배려인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교육의 본질에서 너무 멀리 가있다. 새롭게 개편된 교육 안을 토대로 길러지는 인간은 그동안의 교육의 과정에서 길러진 인간과 불일치하는 놀라움을 경험할지 모른다. 새롭게 제시된 교육과정과 수능개편 안으로 인해 여러 교과목의 부침이 있을 것이다. 놀라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과와 그렇지 않은 교과의 구분은 또 다른 놀라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교육을 바꾸고자 하는 일련의 시도로 인해 지리학은 놀라움을 경험한다. 지리학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놀라움의 경험이다. 지리학이 위기를 맞는 것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만큼 교육의 과정을 중단해야 하는 지에 대해 놀라운 경험을 하진 않았다. 지리가 독립과목으로서의 위상을 잃어버릴 때에도 놀라움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황상태는 아니었다. 학교에서 필수로 배워야 하는 교육과정 교과목 가운데 지리라는 과목 명칭이 사라진다는 것은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었다. 하지만, 한국지리, 세계지리, 경제지리 등의 과목을 통해 지리의 위상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것이 지리학의 부활을 예고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지리는 심화과목에서나마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리학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의 과정은 계속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수능 개편 안은 이마저도 불가능하게 한다. 과목간의 통합을 토대로 수능 시험문제를 출제한다는 발상이 발표되는 순간에 특정 과목을 제외한 사회탐구 과목은 근조를 표시한다. 더 이상 학교 교육에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잃는다. Eisner(1985)의 주장처럼 국가 단위의 평가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국가 단위의 평가가 교육의 목표와 방향을 결

정한다. 국가 단위 평가가 교육의 본래적인 목적이나 목표를 지향하고 있더라도, 학교 현장에서의 왜곡은 불가피하다. 지리를 비롯한 다른 과목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이 수능능력시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마치 학교 교육에서 국어, 영어, 수학이 진리의 보증이자 이성의 안내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놀라움은 배가 된다.

국어, 영어, 수학이 모든 학교 교육의 과정에 핵심으로 자리한다. 그들은 두 과목으로 나뉘고, 수준별로 교육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입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누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누가' 국가 단위의 시험을 그렇게 해야 사교육이 줄고,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지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 자신의 시선에 대한 성찰없는 성실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반드시 확인하게 해야 한다.

아렌트(Arendt)가 1960년대 초반에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을 보고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그녀는 수많은 유대인을 독가스실로 보낸 것에 대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아이히만을 보면서 전율한다. 그녀는 그 많은 유대인을 죽인 아이히만은 웬지 괴물처럼 생겼을 거라 상상한다. 하지만, 정작 그는 너무나 평범하고, 윤리적인 인간이었다. 감옥에 갇혀있는 아이히만에게 옥살이의 무료함을 덜어주기 위해 간수가 성인잡지를 주었을 때 아이히만은 자신을 그렇게 취급하는 간수에게 오히려 화를 낸다. 자신은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윤리적인 사람이라는 것이다. 그런 아이히만에 대해 아렌트는 심한 충격을 받는다.

아이히만이 보여주는 '철저한 무사유(sheer thoughtlessness)'가 갖는 심각한 악의 평범성을 보면서 그녀는 몸서리 친다. 상관이 시키는 일을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행하는 사이보그 같은 인간이 인류에 미친 엄청난 피해에 대해 허탈해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놀라움이나 중단 등은 어쩌면 아이히만과 같은 성찰하지 못하면서 성실하고, 근면하고, 봉사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이루어질지 모른다.

지리학의 위기는 악의 평범성에 기인한 것인지 모른다. 성실하고, 근면하고, 봉사하지만, 무엇을 위해 성

실해야 하고, 근면해야 하는지 모르는 하지만,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 의해 초래되었는지 모른다. 지리학은 이같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지리학이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학문이며, 우리 삶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학문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우리 삶과 유리된 학문이 아니라, 우리 삶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학문임을 증명해야 한다. 지리학의 학문적 존재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리학은 '인정투쟁'을 벌여야 한다. 지리학은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구성해, 다른 사람들에게 지리학의 존재이유에 대해 설파해야 한다.

국제 금융 통화 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가 혼돈 상태에 빠진 적이 있다. 이때 뉴욕의 월스트리트나 영국의 롬바드 거리에서 세계 통화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길러낸 아이비리그 대학의 교수들은 자신들이 잘못 가르쳤음을 반성한다. 그 잘못의 근원을 '인문학'의 부재에서 찾았다. 대학이 실용적인 학문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인재 양성에 소홀하였음을 고백한다. 이를 위해 인문학 강좌를 늘리기로 했다. 인간에 대한 애정이 전제될 때 사회는 따뜻하고 공정하고 정직할 거라 믿는다.

지리학은 인간 삶에 대한 호기심에서 생겨난 학문이다. 그렇기에 인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지리학의 오랜 논의 거리였다. 지리학과 지리교육이 '지금 여기'에서 존재해야 하는 이유 역시 지리학이 지속적으로 관심가져왔던 인간에 대한 관심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지리학에 놀라움을 주는 사람들을 향해 반론을 제기해야 한다. 지리학이 어떤 학문이고, 세상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인간 삶에 대한 연구는 중단되지 않아야 함을 말해야 한다. 지리학과 지리교육이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음을 말해야 한다. 지리교육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지리교과의 정당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지리학과 지리교육은 우리 삶에 대해 따뜻한 애정을 갖고 있는 학문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 2. 지리학, 인간의 심연 세계와 일상 세계를 아우른다.

### 1) 나는 공간을 차지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 존재는 지리적이다. 하지만, 존재론에는 지리학이 결여되어 있고, 지리학에는 존재론이 결여되어 있다. 지리학자에게 존재론은 낯설다. 지리적 현상을 통해 존재의 문제로 다가서는데 익숙하지 않다. 지리학자는 철학자처럼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학이 존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이란 존재가 지구에 거주하면서 자신을 '새기고 있으며(graphien)', 지구에 자신을 새긴 것이 다른 어떤 의미체계 속에 받아들여져 새로운 새김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Kim, 2007, 11-15).

지리학자는 구체적인 사물을 사고의 대상으로 삼는다. 칸트(Kant)가 자신의 논리학 강의를 하기 이전에 자연지리학 강의를 열심히 했었던 것 역시 지리학이라는 학문이 갖고 있는 구체성에 기인한다. 공간은 비어 있지만, 공간을 채우고 있는 사물은 인간을 대변하고, 집단을 인식하게 한다. 공간을 채우는 방식과 배치를 통해 사람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그렇기에 공간에 투영되어 있는 사물은 곧 인간 그 자체이다. 세계내존재(being in the world)로서 인간은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파악될 수 있는 지리적 존재이다.

그렇기에 지리학자에게 일상 공간은 매우 중요하다. 인간이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소비하는 공간은 인간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 '공각기동대'에서 주인공 쿠사나기 모토코는 자신이 누구인지 끊임없이 고민한다. 사이보그인 그는 인간이 아니기에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다. 정확하게는 과거가 담겨있는 공간에 대한 기억이 없다. 자신의 '무의지적 기억'을 통해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에 그는 자신이 인간이 아님을 안다. 벤야민(Benjamin)이 말하는 '무의지적 기억'이란 섬광처럼 순간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기억 방식이다. 예기치 않았던 공간에서 예기치 않았던 순간이 기억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무의지적 기억'은 내가 군고구마를 먹는 순간에 떠오르는 어릴 적 어느 공간에 대

해 이야기 하는 것과 같은 기억을 말한다. 일상적인 삶의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떠오르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다. 그렇기에 '무의지적 기억'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이어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지금 여기'의 나를 드러내게 한다. 인간은 관념적이고 본질적인 논의를 통해 완성되는 존재가 아니다. 매일의 작은 사물의 조각이 모여 완성되는 존재인 것이다.

지리학은 구체성의 미학을 추구한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관을 통해 인간 존재에 접근한다. 인간 자신이 살아가면서 공간에 새겨놓은 흔적을 통해 인간을 이해한다. 누군가 자신의 생활세계에 무언가를 '새겨 놓았다'는 것은 새겨 놓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공간에 흔적을 남기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새긴다. 집단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도 새긴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인간 존재의 실존의 문제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같은 인간이라도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따라 새기는 것이 달라진다.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새기는 것과 직장에 있을 때 새기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인간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실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어디에 존재하는가에 따라 인간의 실존이 달라진다. 실존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이다. 하지만, 관계 자체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실존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어디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사르트르(Sartre)의 주장처럼 '실존은 늘 본질에 앞선다.' 본질은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벗어난다. 어떤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 놓여 있는가와 관련 없다. 늘 같다. 그런 점에서 본질은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저편에 존재하는 것이다. 실존은 본질과 다르다. 인간이 어떤 시공간에 놓여져 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가 어떤 '크로노토프(chronotope)'에 처해있는가에 따라 실존의 모습은 달라진다.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을 찾는다. 인간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크로노토프는 일상적인 삶 너머에 존재한다.

오늘날 사람들은 한 공간에 정주하지 않는다.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에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근원적 공간이 사라진다. 인간의 유동성의 증가

는 동네에서마저 익명성이 나타나게 한다. 익명성의 등장은 동네와 도시의 과거를 없앤다. 미래마저 소거한다. 익명성은 마을 사람들 간에 공유하는 과거가 없음을 말한다. 그렇기에 '지금 여기'의 관계도 소홀하다. 자신을 드러내주는 근원적인 공간의 부재는 자아를 잃어버린 수많은 현대인을 생산한다. 나를 확인받을 수 있는 근원공간의 상실은 인간을 끊임없이 부유하게 한다. 나를 찾기 위한 여정도 없고, 나를 만들기 위한 고민도 없다. 그저 인간은 부유하고, 떠돈다. 근원공간의 상실과 부재는 우리의 실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나에게 익숙한 동네의 부재는 인간관계의 부재를 양산하고, 그것이 곧 사회문제로 확대된다. 동네에서 얼굴을 매일같이 보면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하는 짓은 할 수 없다. 동네의 부재는 곧 익명성의 증가를 가져왔고, 그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소통의 부재를 양산한다. 동네 사람과의 소통의 부재는 규칙이나 법의 문제로 살아가도록 만들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관계는 차단된다. 사람들의 관계가 부자연스러워지면서 동창생을 찾고, 고향사람을 찾는다. 자연스런 인간관계가 그립다. 연고주의가 우리 사회 저변에 깔려있는 것도 결국은 동네의 부재에서 기인하는 공간의 문제인 것이다. 오늘날 현대 사회의 부박함이 일어난 이유는 이런 근원공간에 대한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체험기회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Kim and Moon, 2005, 504-505).

인간 존재에 대한 논의를 추상적인 차원에서 진행할 때, 인간 존재의 본질을 상실한다. 지리학은 추상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지리학이 존재론을 결여하고 있다는 베르크(Berque)의 지적은 존재론을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지리학은 구체적인 사물을 대상으로 인간 존재를 설명한다. 도시 공간을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사물을 통해 인간을 이해한다. 사물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다양한 기억과 욕망을 통해 도시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몸의 위치를 파악한다. 그렇기에 지리학은 인간 존재의 심연에 다가갈 수 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지 않기에 인간 본질을 왜곡하지 않고 심연에 다가설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리학이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이유 가운데

데 하나이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남아있는 마지막 명제를 데카르트(Descartes)는 생각하고 있는 나에서 찾았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명제는 '어디에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데카르트는 라일(Ryle)이 지적하듯이 마음과 육체에 관한 이원론적 시각을 제시하는 범주적 오류를 범한다. '지금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나와 '그때 거기'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가 다를 수 있음을 데카르트는 인지하지 못했다. 생각하고 있는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생각하는 내용은 달라진다. 내 몸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내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대상이 달라진다. 내가 어떤 사물에, 어떤 사람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가 달라진다. 하지만, 데카르트에게는 생각하는 존재만 의미를 갖는다. 그에게 공간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관계속에서 형성되는 인간 실존의 문제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

'나는 공간을 차지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Shields(1997)가 데카르트의 명제를 바꾸어 제시하고 있는 이 명제는 지리학의 학문적 존재이유를 대변한다. 지리학이 인간 존재의 심연으로 들어가는 통로이고, 지리학을 통해 인간의 심연을 비출 수 있음을 말해준다. 모든 것을 부인하면서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생각하고 있는 나일 때, 지리학은 '어디에서' 생각하고 있는지를 묻는다. 지리학은 나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물을 통해 인간 의식의 심연 세계를 설명한다. 지리학은 인간이 지구에 새겨놓은 흔적을 통해 인간 존재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음을 알린다. 지리학은 존재론을 결여하지 않았다. 다만, 지금까지 결여하였다고 생각할 뿐이었다.

지리학은 인간이 땅에 새겨놓은 것을 대상으로 한다. 인간이 새겨놓은 흔적을 찾아 수많은 지리학자는 산책한다. 같은 흔적이라도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리려 한다. 인간의 다양한 실존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금 여기'에 거주하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 지리학은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그 시작이 지리학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이라는 사실이 조금은 아쉽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학이 인간 존재의 심연

에 다가갈 수 있고,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학문임을 알리는 것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것을 통해 지리학이 세상에 필요한 인정받아야 한다.

공간과 인간의 관계는 불가분이다.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인간의 삶은 공간 구속적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공간이 나와 우리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다양한 실천이 이어져야 한다. 지리학이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경관을 통해 세상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음을 알게 하는 작은 실천이 지리학의 학문적 존재이유를 대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지리학이 우리 사회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2) 지리학, 일상적인 삶을 비추다

지리학의 존재론적 기여는 시작되었다. 일상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지리학 역시 진행형이다. 인간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일상의 작은 공간이다. 내가 자주 소비하는 공간을 통해 인간은 자신을 드러낸다. 나의 음식 취향은 내가 자주 가는 음식점을 통해 드러내고, 나의 패션스타일은 내가 자주 입는 브랜드를 파는 옷가게를 통해 드러낸다. 일상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사물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다. 나의 욕망과 기억을 반영한다. 나의 취향과 기호를, 나의 존재를 드러내준다.

일상적인 요소들에 대한 관심은 지리학 뿐만아니라 다른 학문에서도 매우 높다. 매일같이 반복하고 있는 일상적인 요소가 거창하고 추상적인 요소들보다 인간을 더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다른 학문에서도 안다. 일상에 대한 관심은 점점증한다. 일상의 작고 소소한 이야기에 대한 관심도 늘어난다. 그것이 결코 작소 소소한 것이 아님을 모두가 안다. 인간 존재의 실존이라는 무겁고, 어려운 개념이 작은 사물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에 일상은 가볍고, 사소하지 않다.

일상적인 요소에 대한 지리학적인 관심은 단순히 지리학의 학문전통을 계승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문화라는 것이 익숙한 것들로부터 낯설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리학은 이미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우리 삶의 전제가 되어버

려 중요함을 알고 있는 일상 공간에서 의미를 발견한다. 그것을 통해 통념적인 지리학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난 지리학의 새로운 연구전통을 형성한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있는 학문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경험세계에 관심을 갖는 지리학의 문화를 만들고 있다. 일상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물에 천착하는 것으로부터 지리학은 거듭난다. 삶의 전제이기에 의심하지 않았던 요소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토대로 '지금 여기'에 사는 인간의 삶을 조명한다.

지리학의 문화를 새롭게 형성하는 것은 단지 지리학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리학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자신의 학문 틀 내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에 나와 다른 학문과의 교류를 부추긴다. 다른 학문과의 접합을 통해 복잡해져가는 일상적인 인간의 삶의 문제에 천착하기를 요청받는다. 일상의 모습에 접근한다는 것은 단지 지리적 현상의 문제에 몰입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일상은 지리적 요소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간을 중심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학문 사회의 문화를 만들 수 있게 한다. '공간적 전환(spatial turn)'은 세상을 인식하는 커다란 흐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공간이 세상을 읽어가는 중요한 인식소임을 세상에 알리는 인식의 전환이다. 지리학은 세상을 읽어내는 그 중심에서 있는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을 뿐이다.

공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에 공간이 있다고 할 때, 공간은 단지 지리적 현상으로만 환원되지 않는다. 공간은 모든 현상을 담고 있기에 어떤 현상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 공간의 가치는 달라진다. 근대화 과정에서 진보는 도구적 이성을 앞세워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지금보다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곧 권력을 대변하였다. 권력이 영토와 경계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Lee, 2009, 182). 도구적 이성은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삶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하였다. 빠른 움직임은 생활세계의 확대를 가져왔고, 그것은 더 넓은 공간의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인간의 삶은 가속도가 붙으면서 유동성이 커진다. 인간은 유동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만들고, 도구적 이성은 그 공간을 채운다. 사물을 배치하고, 기억과 욕망

을 드러낸다. 주어진 시간에 공간을 채우면, 다시 채워야 할 공간을 확장하는 일에 몰두한다. 근대화의 과정에서 공간은 가치였고, 시간은 도구였다(Lee, 2009, 182). 공간은 권력을 드러내고, 자신을 드러내는 가치 그 자체였다. 일상적인 생활공간의 확대는 어제보다 나은 삶을 말해준다. 공간은 새로운 가치체제로 등장한다. 화폐의 가치를 반영하는, 경제의 흐름을 대변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렇기에 우리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고, 수입이 늘어나면서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싶어한다. 공간이 곧 인간을 대변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일상화된다. 공간은 비어있는 곳이 아니라, 무언가로 가득 채워져 있다. 비어있지만, 비어있지 않은 곳이 공간이다. 그렇기에 공간 위에서 일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할 여지를 갖는다.

지리학은 인간의 삶과 공간의 관계에 천착한다. 다른 학문과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일상적인 인간의 삶에 관심 갖는다.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인간의 삶을 조명한다. 바로크 시대를 대표하는 루벤스의 그림은, 주인공을 마치 핀 조명으로 비추는 것처럼 가장 환하게 비추고, 주변을 어둡게 함으로써 극적인 요소를 증가시킨다. 공간의 가치는 루벤스 그림처럼 일상적인 인간 삶의 내면세계를 환하게 비추는데 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공간은 꾸밈없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며 가식이 없는 인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우리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작고 사소한 것으로 구성된 일상 공간이 힘을 갖는 것은 그것이 인간이 만든 의미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하는 낯익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일상 공간은 꾸미지 않은 우리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해주는 진실한 곳이다. 이러한 일상 공간은 우리 삶을 가능하게 해주지만,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묵묵히 나를, 그리고 우리를 지탱해준다(Park, 2009, 27-28).

우리는 일상에서 공간에 대한 무의식적 발현을 경험한다. 우리가 '분위기가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간에 들어오니까 느낌이 좋다, 이 집에 들어오니까 기분이 좋다라는 것의 표현이다. 여기에 오니

까 느낌이 좋더라는 것은 그 곳을 채우고 있는 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사물에서 나오는 어떤 종류의 공간적 감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Kim *et al.*, 2005, 507). 어쩌면 이같은 일상적인 대화과정에서 공간에 대한 무의식은 지속적으로 표현된다. 다만, 그것이 지리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우리가 말하지 못하고 있을뿐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간구속적이기에 공간은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우리 존재에 영향을 준다. 공간에 대한 이같은 인식이 지리학의 중요한 연구 주제를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이 지리학이 학문사회에 존재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지리학은 공간에 담겨있는 구체적인 사물을 나열하지 않는다. 지리학에 대한 그런 인식은 백지화해야 한다. 지리학에 대한 그릇된 편견에 근거한 통념적 인식은 제거되어야 한다. 지리학은 우리 삶의 생생한 경험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 익숙하기에 주목받지 못한 일상 공간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 삶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확대한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요소들에서 시작해서 인간의 내면세계에 다다를 수 있는 학문임을 알아야 한다. 익숙한 공간에서 새로움을 발견하게 하고, 그것을 토대로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 다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학문임을 인지해야 한다. 그리고 지리학은 그런 학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인간에 대한 애정을 갖고 행해지는 일상의 작은 노력이 그와같은 지리학의 모습을 완성해갈 것이다.

### 3. 지리교육, 존재론적 성찰과 교과 정당성 확보

#### 1) 지리 교과에 대한 성찰: 지리는 꼭 가르쳐야 한다

학교에서 지리를 안 가르쳐도 될까? 지리학의 학문적 필요만큼이나 지리교육에 대한 수요가 그리 많아 보이지 않는다. 학생들의 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에게 지리 수요가 많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지리교육자들은 정책 입안자

에게 지리는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과목이라고 공감할 수 있는 논리가 부족하다. 지리라는 과목명 대신에 '한국사'와 '경제'를 대입해도 어색하지 않은 지리교육만의 필요성이 아니다. 지리가 그렇게 중요하면, 역사나 일반사회는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반론에 아무말도 할 수 없는 필요성이 아니다. 다른 과목명을 대입했을 때 논리가 어색하고, 성립할 수 없는 지리만의 고유한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지리를 꼭 가르쳐야만 하는 지리만의 고유한 필요성이 있을까? 하지만, 너무나 본질적인 물음이어서 그것에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른 교과목 모두가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칠 필요가 있어 존재하는가?라는 물음에 다른 과목 역시도 이유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학과 지리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지리를 학교에서 꼭 가르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적어도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라도 마련해야 한다.

푸코(Foucault)는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서도 진실 안에 없을 수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누군가가 길들여지지 않은 외부 공간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Lee, 2009, 132).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수능 개편 안에 대한 정책입안자의 논리는 진실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그들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고민은 있다. 지리학이 필요함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논리가 전혀 없어서가 아니다. 교과이기주의로 폄하하는 경우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리학 고유의 논리가 부족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보다 객관적으로 지리교과의 필요성에 대해, 지리교과의 내재적 가치에 대해 세상을 향해 천명할 필요가 있다.

학교에서 지리를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한다. 지리를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이 온전한 인간을 길러내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푸코는 인간 주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토대로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움직임 '미학화(esthétisation)'라고 표현한다. 미학화는 자기 자신

에 의한 자신의 변환이라는 자기 주도성을 갖는다. 미학화이지만, 인간 주체가 갖고 있는 유미주의적이고, 탐미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푸코의 미학화는 하나의 대상을 문제화하고, 한 존재가 주어진 시대에 어떻게 사유되었는지를 자문하고(이것이 그가 고고학이라고 이름 붙인 것의 임무다), 그리고 존재가 그렇게 사유된 것과 상관성을 가지는 과학, 윤리, 처벌, 의학 등등의 다양한 사회적 실천을 기술하고 분석하는 것(이것이 니체적 의미에서 계보학의 임무다)으로 세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Lee, 2009, 168-169).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지리교육은 자기 자신에 의한 자기의 변환이다. 푸코의 미학화된 주체가 필요한 시점이다.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 틀 지워지고, 그것에 의해 얽매이는 지리교육이 아니라, 지리교육을 통해 길러내고자 하는 인간에 대한 논의나, 지리교육에서 가르쳐야 하는 내용에 대한 숙의과정을 거쳐 과거와 다른 지리교육의 모습을 구성해야 할 때이다. 자기 주도성을 갖고 다른 과목에 이끌려 다니지 않기 위해 지리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다른 과목과 구별될 수 있는 지리학만의 고유한 학습 내용이 있는지 찾아야 한다. 지리교육에 대한 성찰을 통해 지리를 생동감 있고 학습자의 삶을 반영하는 교과목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18세기에 흙은 '존재'와 '당위'의 문제를 통해 과학의 존재에 대해 설파한다. 과학은 당위적으로 가르쳐져야 할 것이 아니라, 존재하여야 하고, 그것은 곧 객관적 인식의 조건임을 말한다. 지리 교과도 '내가 지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지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당위'적인 시선을 버려야 한다. 지리는 존재 그 자체로 학생들이 배울만한 가치가 있는 교과임을 알게 해야 한다. '존재'의 차원에서 지리 교과는 교육적 이상을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주장해야 한다. 지리를 배움으로써 학습자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확대할 수 있음을 알게 해야 한다.

우리가 지리를 전공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서는 지리를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왜 지리를 학교에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성찰을 가로막는다.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지리가 제대로 된 지리인지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을 소거시킨다. 일상적으로

굳어진 지리에 대한 교육은 학생들의 흥미를 반감시킬 수 있고, 학교에서 지리 교과에 위상 추락에 기여한다. 지리 교과에 대한 당위론적인 인식은 지리 교과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학문적 논리 개발에 대한 관심을 지연시킨다. 지리를 전공한 사람들에게 지리는 중요한 학문이고, 학습자가 꼭 배워야 할 교과이다. 하지만, 수능 개편안에서 세계지리와 한국지리를 합해 지리라는 과목으로 시험을 치르게 하려는 사람들을 포함해 지리를 학교에서 꼭 가르쳐야 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미약하다. 지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지리를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이라고 믿는 것과 지리를 전공했기에 당연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된다.

'지금 여기'에서 지리를 학교에서 꼭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은 지리교육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에서 시작해야 한다. 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치지 않아도 되지 않을 까하는 생각에서 시작해야 한다. 학습자가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지리적 인식이나 안목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 진지한 성찰이 요구된다. 물론, 지리 교과에 대한 존재론적 차원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과정 정치학적 관점이 현실적으로는 더욱 유효한지 모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 교과를 학교에서 꼭 가르쳐야 하는 이유에 대한 존재론적 차원에서의 고민은 다른 교과에서 학습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 교과임을 알리는 데 유효하다. 그런 성찰의 과정은 지리교과를 가르쳐야 할 필요성에 대답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다른 어떤 교과보다 학교에서 지리를 가르쳐야 한다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리교육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공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알게하고, 공간을 통해 인간을 이해하게 하는 교육의 과정을 구상할 수 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공간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줄 수 있다. 예를 들면, 얼마전 어느 방송국에서 여성과 남성의 업무수행 능력을 측정하는 실험을 집이라는 공간에서 진행한 적이 있다. 여성은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지만, 남성은 한 가지 일을 마친 후에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실험장소가 집이 아니



라, 다른 공간이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심리학자들에게 공간의 문제는 전제이다. 어느 공간에서든지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지리 수업시간에 이 문제를 다룬다면 여성에게 익숙한 집이라는 여성의 공간이 아니라, 남성들에게 익숙한 남성의 공간에서 동일한 실험을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생각해 볼 수 있다. 공간을 대상으로 세상과 소통한다는 것은 기존의 접근과는 다른 생각의 지평을 열어줄 수 있다. 공간이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에 공간을 중심으로 인간의 삶을 설명한다는 것은 분명 다른 교과와의 차별을 가능하게 한다.

지리 교과가 학교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지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활동에서 나온다. 그것이 모여 지리 교과의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지리에 대한 존재론적 성찰은 그 출발점이다. 칸트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을 ‘철학하기(philosophieren)’라고 한다.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지리에 대해 잘 가르치고 있는지, 지리를 학교에서 꼭 가르쳐야 할 이유가 있는지를 질문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지리교과는 다른 교과와 구별되는 학교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찾을 것이다.

## 2) 교과로서의 정당성: 지리는 ‘과목’이 아니라 ‘교과’이다<sup>1)</sup>

여러 번의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지리 교과의 위상은 낮아졌다.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느낄 만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리가 학교에서 ‘과목’이 아닌 ‘교과’로서 생존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가 필요하다. 지리가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교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스트(Hirst)의 ‘지식의 형식’론은 지리를 교과로 다루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지리가 교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논리를 찾아야 한다. 그 대안적인 시각을 우리는 오우크쇼트(Oakeshott)의 경험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오우크쇼트는 지리 교과를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준다.

오우크쇼트의 ‘총체로서의 경험’은 우리의 인식체

계로 직접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억류된 상태 속의 불완전한 경험으로서의 양상들뿐이다. 양상들은 총체적 경험과 연결됨으로써만이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존재할 수 있다. 총체로서의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 양상들은 억류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경험을 의미하므로, 그들은 총체적 경험의 부분이기보다는 제한된 관점에서의 전체인 것이다.

불완전한 전체로서의 양상들은 서로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경험의 양상들 간의 우열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양상이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억류된 시점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억류된 시점이 다르다는 것은 총체적 경험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며, 추상의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추상된 정도나 총체적 경험과의 정합성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양상들 간의 비교는 불가능하다. 각각의 양상들은 고유한 영역을 갖고 있으며, 다른 영역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그렇기에 각각의 경험의 양상은 학교에서 교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다. 각각의 경험의 양상은 어떤 면에서 허스트의 ‘지식의 형식’이 고유한 방법론과 개념을 갖고 있듯이, 양상화된 경험들 역시 나름의 핵심개념을 갖고 있어 허스트의 지식의 형식론과 유사하다. 그런 점에서 오우크쇼트의 경험이론은 교과론으로 이해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오우크쇼트의 경험 이론에 근거할 때, 경험의 양상으로서의 지리적 경험이 핵심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각각의 경험의 양상이 갖고 있는 고유의 핵심개념은 총체로서의 경험을 시공간적으로 억류된 상태에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요소이다. 오우크쇼트는 총체로서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양상의 사례로 ‘역사적’, ‘과학적’, ‘실제적’ 양상과 나중에 ‘시적’ 양상 등을 제시한다. 역사적 경험은 ‘과거’를, 과학적 경험은 ‘양(量)’을, 그리고 실제적 경험은 ‘의미’를 핵심개념으로 한다(Oakeshott, 1933, 84). 그러나 억류된 상태에서 ‘실제’를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의 양상은 오우크쇼트가 제시한 것 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양상이 존재할 수 있다.<sup>2)</sup> 시공간적으로 억류된 상태에서 궁극적인 실재에 ‘무엇을’ 통해 도달할 수

있는지가 문제다.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의 양상만이 실재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재'의 특성은 몇 가지의 핵심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경험의 양상이 존재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실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오우크쇼트가 『경험과 그 양상들(Experience and Its Modes)(1933)』에서 경험의 양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경험의 양상으로서 '지리적 양상(geographical mode)'을 고려할 수 있다. 시공간적으로 역류된 상태에서 지리적 경험을 통해 궁극적 실재에 다가가는 것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지리적 경험을 특징지을 수 있는 핵심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지리적 경험은 '위치'를 통해서 궁극적 실재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 경험에서 '위치'는 모든 지리적 현상들을 파악할 수 있는 출발점이며, 종착점이다. 지리학자는 지리적 현상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묻고, 왜 그와같은 현상이 그곳에서 발생했는지를 묻는다. 동일한 지리적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와같은 현상이 발생한 곳이 어디인가에 따라 지리적 현상에 담겨있는 의미는 달라진다. GENIP(Geographic Education National Implementation Project)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리학의 5대 주제 가운데서도 '위치'를 가장 먼저 제시한다. 위치에서 시작해서 장소, 장소내 관계, 그리고 이동을 통해서 하나의 지역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어간다. 지리학의 5대 주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GENIP의 이같은 제안은 지리학의 핵심개념으로서 '위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지리적 현상들이 지닌 본래적인 의미를 이해함에 있어서 '위치'는 중요한 출발점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다양한 삶에 대한 이해는 그들이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를 묻는데서 시작한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삶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해주며, 그와같은 삶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실존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게 해준다. 우리가 전화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어디야'라는 것을 묻는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묻는 이 질문은 인간 행위와 공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준다.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다면, 어떤 행위

를 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우리들은 일상에서 공간이 허락하는 행위만을 한다.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감독하는 교사가 운동하면서 놀 수가 없다. 체육관에 있는 교사가 수업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고, 도서관에서 책 읽고, 공부한다. 공간이 허락하는 행위는 우리의 자연스런 행동이다. 그런 자연스런 행동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의미를 구성해주는 교과가 지리이다(Park, 2009, 16).

지리적 경험은 '위치'라는 양상 하에서 파악될 수 있는 세계이다. 이를 통해 역류된 상태에서 궁극적인 실재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곧 지리적 경험이 다른 경험의 양상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세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양상과 통약불가능한 지리적 경험은 곧 하나의 교과로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지리 교과는 허스트의 지식의 형식론에서 '지식의 형식(form of knowledge)'이 아니라 '지식의 분야(field of knowledge)'에 해당되어 독립된 교과로서 위상을 얻지 못했다. 교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해도 조금은 모호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오우크쇼트의 경험이론에 근거할 경우 지리 교과는 다른 교과와 대등한 교과로서의 위상을 갖는다. 지리 교과는 하나의 '과목'이 아닌 '교과'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오우크쇼트의 교과관은 기존의 교과관이 '교육내용의 특성'에 근거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범하고 있었던 이분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한다. 오우크쇼트가 제시하는 '경험되는 것'과 '경험하는 것'을 포함하는 '총체로서의 경험'이 지리 교과 내용구성의 근거로서 이용될 때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지리 교과의 교육내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Park, 2000). 일상 공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통해, 인간 존재를,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일상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지리교육은 '명제적 지식' 내지는 '기술적 지식'에 대한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sup>3)</sup>이나 '묵시적 지식(tacit knowledge)'도 함께 가르쳐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준다.

우리가 지리를 전공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기대어 지리교육의 본질적인 물음에 침묵으로 일관한다

면, 지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는 가슴으로만 답해야 할지 모른다. 지리를 전공하고 있다는 존재론적인 차원의 물음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리를 교과로서 정당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작업이 이어질 때 결국은 교육과정 정치학의 지형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 4. 결론

고르기아스(Gorgias)가 묻는다. 지리과는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느냐, 만약에 고유한 가치를 갖고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느냐, 지리과가 지닌 고유한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느냐고(Park, 2007, 1). 고르기아스의 삼단논법을 원용하여 던진 이러한 질문에 '지금 여기'에서 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응당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고르기아스의 이 낯설지 않은 질문은 대답하기 어렵다.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이기에 그렇다. 하지만 지리학과 지리교육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리학과 지리교육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야 할 때 고르기아스의 회의론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간 문제는 언제나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공간은 늘 그 자리에 있는 상수였다. 공간의 선형성은 인간 사유를 지배하는 부동의 지층은 아니다. 공간은 변화하며, 인간이 결국 변화시킨다. 하지만, 그것은 무의식적이다. 인간의 의지대로그 아니라, 일상적인 삶의 변화과정에서 공간은 무의식적으로 변화한다. 우리가 얼마만큼 공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 그 한계를 알기란 어렵다. 분명 공간은 늘 같은 자리에 있다. 그래서 흔히 과거에 내가 있었고, '지금 여기'에 내가 서 있는 공간이 변했음에도 그 변화에 한없이 둔감하다. 공간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다. 공간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공간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교 지리교육에서 공간의 중요성은 이미 주어진 명제일 뿐이다. 지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공간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지리교사에게 당위이다. 공간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다. 공간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대해 반문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간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에게 설명하지 않는다. 지리적 현상을 이해하고,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공간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지만, 그냥 지나친다. 지리교육을 당위론적으로 인식하는 경우, 지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하지 못한다. 학생들이 지리를 왜 배워야 하고, 학교에서 왜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지 않는다. 지리는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지리에 대한 당위적인 사고는 어쩌면 지리를 전공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 지리를 전공한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되었고, 그들은 지리를 학교에서 없애려 한다.

지리학이 맞고 있는 위기는 공간을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당연시한데서 비롯된 것인지 모른다. 공간은 인간의 삶을 이해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라는 데 이견은 없다. 우리가 일상에서 '느낌이 참 좋다' 라고 할 때, 사물 그 자체의 속성보다는 사물이 우리에게 연상시키는 어떤 공간 의식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즉, 분위기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공간에 들어오니까 좋다는 것으로 일종의 공간 의식을 말한다. 나아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연고주의 문제도 공간의 문제일 수 있다. 동네가 없어지고, 사람간의 관계가 부자연스러워지면서 자연스런 사람 관계를 찾게 되고, 그것이 다양한 연고주의를 낳는다(Kim and Moon, 2005, 390). 인간 존재의 근원적 요소로서 공간의 부재는 또 다른 근원적 요소를 찾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공간의 문제는 단지 선형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선형적으로 주어진 것처럼 인식될 뿐이다. 지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공간에 대해 어떤 성찰을 하고,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지리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달라질 것이다. 이제 지리학은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토대로 인간 존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학문으로 사회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상 속 공간이 결코 선

험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천명해야 한다. 그것을 토대로 지리학이 '지금 여기'에 존재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해야 한다. 공간 안에 인간의 삶이 담겨있고, 인간의 삶에 공간이 담겨있음을 설파해야 한다. '나는 공간을 차지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고 말하는 현대의 인간은 지리적 존재임을 부정하지 않는다. 현대를 살아가는 인간은 한 곳에 정주하지 못하고 유동한다. 자신의 근원공간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공간은 자신의 실존을 드러내는 곳이다. 그런 공간을 지리학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인간 존재에 관심 갖는 지리학의 유의미성은 푼크툼(punctum)적인 지리학의 해석일지 모른다. 하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지리적 존재이다. 그렇기에 인간 존재에 대해, 인간의 삶에 대해 설명하려 할 때, 지리학은 학문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클 것이다. 존재론이 추상적인 담론에 치우칠 경우 인간 존재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 하지만, 지리학은 구체적 사물이나 경관을 대상으로 사고한다. 그렇기에 지리학의 존재론은 인간 존재를 위한 학문적 효용성이 더욱 크다. 그것이 지리학이 학문사회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를 위해 지리학은 이제 공간의 일상성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상 공간에서 낯설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일상 공간을 추구하는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이 전제될 때, 지리학은 인문학으로 거듭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리학은 학문적, 교육적 생명력을 더욱 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 주

- 1) 이 절은 Park(2004)의 일부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 2) 오우크쇼트의 경험의 양상을 가는 실로 만들어진 원뿔을 상상하면 이해가 쉽다. 원뿔의 꼭지점을 '실재(reality)'로 생각하고, 원뿔에 연결된 가는 실들이 '실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의 양상들이라 생각하면 된다. 원뿔의 꼭지점에 연결되어 있는 실선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것이 시공간적인 역류상태에서 '실재'에 다가갈 수 있는 경험의 양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경험의 양상은 오우크쇼트가 제시한 사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 3) 오우크쇼트는 주지주의적 전통에 근거한 교과관에서는 '명제적 지식' 내지는 '기술적 지식(technical knowledge)'이 강조되었다고 본다. 하지만 기존의 '기술적 지식'에 근거한 교과관으로는 완전한 의미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를 보충하기 위해 묵시적인 차원(tacit dimension)의 지식도 함께 가르쳐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묵시적 차원의 지식을 '실제적 지식(practical knowledge)'으로 명명한다. 나아가 이같은 두 가지의 지식의 유형이 교실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전달되는 형태로 '정보'와 '판단'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오우크쇼트는 전달하는 지식의 특성에 따라 가르쳐지는 교수학습의 방법들이 구분되어야 하며, 결국에는 그와 같은 교수학습의 과정을 거쳐서 도달되는 목표 역시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참고문헌

- Eisner, E., 1985, *Educational Imagination: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 Programs*, Macmillan Publishing Co., NewYork.
- Kim, W.-C. and Moon, K.-H., 2005, *The Three Circles*, Hangilsa, Paju (김우창 · 문광훈, 2005, 세 개의 둥그라미: 마음, 이데아, 지각, 한길사, 파주).
- Kim, W.-K., 2007, *Ecumene*, DongmunSun, Seoul (김웅권 역, 2007, 외쿠메네:인간 환경에 대한 연구 서설, 동문선, 서울; Berque, A., 2000, *Écoumène: Introduction à l'étude des milieux humains*, Belin, Paris).
- Lee, I.-S. (translation), 2005, *Liquid Modernity*, Kang, Seoul (이일수 역, 액체근대, 강, 서울; Bauman, Z., 2000, *Liquid Modernity*, Polity Press, Cambridge).
- Lee, S.-G. (translation), 2009, *Foucault, Thought and Person*, Kang, Seoul (이상길 역, 푸코, 사유와 인간, 강, 서울; Veyne, P., 2008, *Foucault, Sa Pensee, Sa Personne*, Albin Michel, Paris).
- Oakeshott, M., 1933, *Experience and Its Modes*, Cambridge Univ. Press, Oxford.
- Park, S.-K., 2000, *Reconceptualization the Geography Subject Matter Based on the Everyday Life*,

박승규

- Doctoral thesis, Graduate School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Park, S.-K., 2004, Justification of geography subject matter in secondary school curriculum, *Geography Education*, 6, 123-134 (in korean).
- Park, S.-K., 2007, Dismantling the barriers between reasoning and sensitivity: Reterritorialization of social studies education, using Nomadic perspectives and Aesthetic reasoning, *Research in Social Studies Education*, 14(3), 1-12 (in korean).
- Park, S.-K., 2009, *Geography of Everyday Life*, Bookworld, Seoul (박승규, 2009, 일상의 지리학: 인간과 공간의 관계를 묻다, 책세상, 서울).
- Shields, R., 1997, Spatial stress and resistance: Social meanings of spatialization, in Benko. G. and Strohmayer, U. (eds.), *Space and Social Theory*, Blackwell, Oxford, 186-202.
- 교신: 박승규, 200-703,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339 춘천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이메일: topos@cnue.ac.kr, 전화: 033-260-6425)
- Correspondence: Seung-Kyu Park,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339, Seoksa-Dong Chuncheon, 200-703, Korea (e-mail:topos@cnue.ac.kr, phone: +82-33-260-6425)

최초투고일 2010. 12. 1

수정일 2010. 12. 13

최종접수일 2010. 12. 14